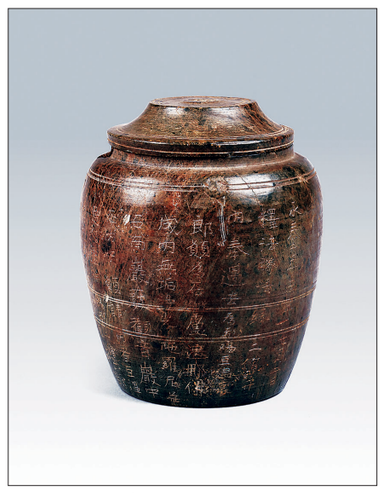
신년에 가볼만한 전시 2題

신라서 조선까지 불교조각 한자리에

부산박물관 2월 15일까지
소장유물 100선 선보여



부산박물관은 2월 15일까지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진보(珍寶)' 를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금동보살입상(국보 200호), 오른쪽은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국보 제233호)

금동보살입상(국보 제200호),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국보 제233호) 등 중요 불교 유물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부산박물관은 2월 15일까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전시 부산박물관 소장유물 100선, 진보(珍寶)'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78년 부산박물관 개관 이후 기증 · 구입 · 발굴조사 등 꾸준한 수집 활동을 통해 확보된 4만 여 점의 유물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했다.

전시는 고고, 불교미술, 도자기, 서화, 고문서, 한일관계, 목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보살입상' (국보 제200호), 신라 비로자나불 좌상의 제작 연대를 8세기로 끌어 올린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국보 제233호), 동래부사를 역임하고 글씨로 이름났던 반곡공 이덕성의 초상과 글씨(보물 제1501호), 젊은 시절 강세황의 필적이 돋보이는 '칠태부인경수연도' (보물 제1809호) 등 국보와 보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약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국보 233호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통일신라시대(766년) 작품으로 경남 산청군 지리산 폐사지에 있던 석조비로자나불 대좌 중대석에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곱돌(蠟石)로 만들어진 뚜껑을 갖춘 사리호로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서 제작 연대와 조성사유 그리고 무구정광다라니경을 안치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곱돌사리호로는 봉화 서동리 3층석탑, 축서사 3층석탑 출토 사리호, 대구 동화사 비로암 3층 석탑 출토 사리호 등이 있다. 이러한 선례로 보아 곱돌사리호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남암사지 사리호는 불상의 대좌 중대석에 법사리를 봉안한 최초의 사례이며 비로자나불의 조성 연대를 8세기(776년)까지 끌어 올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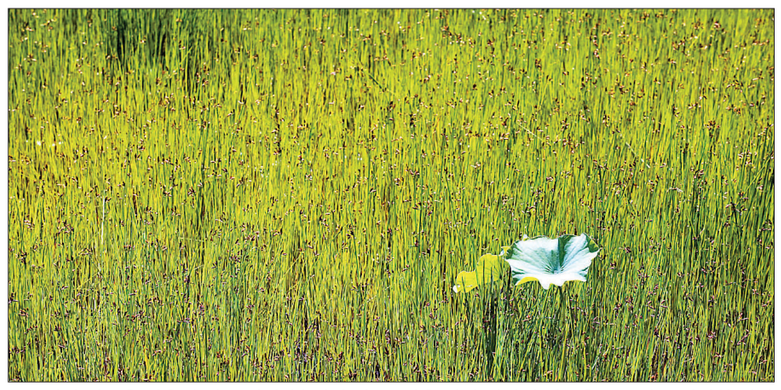
국보 200호 금동보살입상은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정면을 향해 가슴을 펴고 단아한 자세로 직립한 보살상이다. 정수리에 상투 모양의 큰 육계가 있으며 원래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 자국만 남아 있다. 상호는 원만하고 빗어 올린 앞머리와 가늘게 뜬 눈, 길게 늘어진 귀, 약간의 미소를 띤 표정에서 보살의 자비가 스며있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며 상체는 나신(裸身)이다. 이 보살상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금동보살입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관능미에 흐르지 않고 자비와 위엄을 갖춘 상으로 8세기 중엽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고려후기때 제작된 금동보살좌상, 조선후기 불상 조각의 전형을 보여주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3점과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의 불교 유물도 감상할 수 있다. (051)610-713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故 석정 스님과 함께 앵글에 담아낸 連花

송천 스님 사진전
통도사성보박물관서 3월 8일까지



통도사의 연꽃을 담은 송천 스님의 '수처작주' . 스님은 이번 전시 수익금을 통도사 요양병원 건립에 기부한다.

"스승이셨던 석정 스님께서는 매년 한여름 연꽃이 필 때면 여행을 하곤 하셨습니다. 말 없는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을 모시고, 한 컷 두 컷 찍었던 연꽃사진과 매화사진 등이 시간이 지나니 그 양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얼마전 불화의 스승이셨던 석정 스님과 은사이셨던 범하 스님께서 입적하실 즈음, 통도사에서 요양병원과 선원 신축불사를 시작했죠.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묵혀 두었던 사진을 꺼내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송천 스님이 연꽃, 매화, 들꽃 등을 담은 사진전을 갖는다. 3월 8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통도사 주변의 자연을 담은 작품 64점을 선보인다.

故석정 스님과 함께 여행하며 찍었다는 다양한 연꽃의 모습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해준다. 통도사 극락암으로 넘어가는 저수지의 연밭 옆 잡초 속에서 오롯이 피어난 연잎 사진 한 장은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피어난 생명력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다. 제목은 '수처작주' . 어디에 있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연꽃을 통해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는 불가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도 가을 황금 들판을 배경으로 피어난 '코스모스' , 경남 양산 원동 매화마을의 꽃을 담은 '심향청매' 등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앵글 속에 그대로 담아냈다.

요양병원 신축 기금 마련 위해
연꽃 매화 들꽃 등 640작품 전시

사진을 찍기 전 색깔과 명암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스님은 "셔터를 누를 때만큼은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순간을 관조한다. 앵글이라는 모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아름답거나 혹은 편안하거나 하는 순간의 마음을 그대로 셔터에 옮기다 보면 그 순간이 곧 명상이 된다" 며 작업의 과정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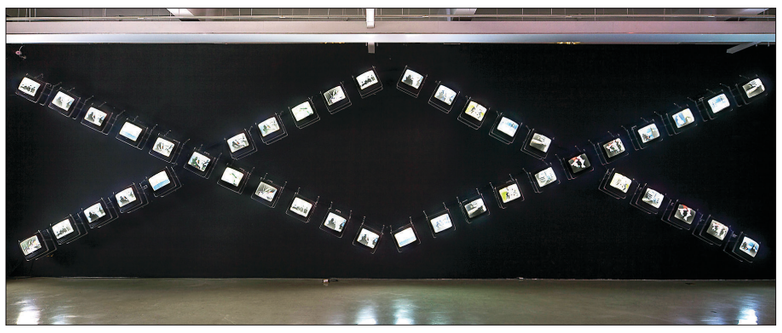
그렇다면 스님이 사진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복의 의미다.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버린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삶의 전부라 생각하고 이 순간 행복의 씨앗을 심고 가꾼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긴 쉽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나눔의 문화, 공동체의 삶이 확대되길 기원합니다"

송천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1989년~1996년 통도사 박물관 학예연구원을 역임했다. 불교미술대전 특선과 단체전에 출품하였으며 충주비엔날레에 초대 되었다. 1990년~2016년 까지 17년간 조계종 25교구 본말사 성보실태조사와 〈한국의 불화〉 40권을 촬영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문하에서 전통불화를 공부했다. 2003년 통도사에서 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소임을 맡고 있다. (055)382-1001 정혜숙 기자

"미래 미학의 세계 미디어 아트로 펼친다"

학고재 갤러리 백남준 개인전 'W3' … 1월 21일~3월 15일



백남준의 W3(1994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미래 미디어 환경을 예측했다.

백남준 개인전 'W3' 가 1월 21일~3월 15일 학고재갤러리 본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항저우 삼상현대미술관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전과 학고재 상하이 '백남준을 상하이에서 만나다' 전 등에서 선보인 작품 12점을 만날 수 있다.

학고재 갤러리는 "故백남준은 최근 세계적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영국의 테이트모던 4층에서 백남준 전시가 열리고 있다. 테이트는 이 전시를 통해 작가의 작품 10여 점을 구매, 작가 작품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여줬다. 이번 학고재 전시는 국내 관람객에게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거장이자 전설이 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경험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더불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전시 제목인 'W3' 는 미래 미디어 환경을 예측한 작가의 이상적 아이디어가 실현된 대표작이다. 총 64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W3는 인터넷을 지칭하는 'World Wide Web' 을 의미한다. 1974년 이미 인터넷을 예상하고 '전자 초 고속도로(Electronic Super Highway)' 란 단어로 현대사회의 웹 문화와 대중매체를 예견한 이 작품은 백남준이 꿈꾸던 미래의 미학 세계를 대변한다. 그는 일상적이고 권위적인 사물이었던 텔레비전을 예술적인 소재로 탈바꿈하여 관객들의 미적 사유를 촉발했다.

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인간 정신의 자유를 향한 작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백남준 작가는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생전 불교적 사상을 내포한 '파란 부처' 'TV 부처' '테크니컬 부처' 등의 작품을 남겼다. 강남 봉은사는 백남준이 타계한 직후인 2006년 49재를 앞두고 경내 법왕루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고, 미공개 유작 '엄마' 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봉은사는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을 맞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02)720-1524 정혜숙 기자

BTN, 모바일 라디오 '울림' 개국

6일부터 시험방송… 4개 채널 3월 1일 정식 오픈

BTN이 법문, 염불 독경채널 및 총 4개 채널로 구성된 모바일 라디오를 개국한다. 2015년, 개국 20주년을 맞이하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정식 오픈에 앞서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시험방송을 시작한다.

BTN라디오는 "스님과 불자들의 재능기부로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불교전문라디오로, 시청자 공모와 투표로 선정된 '울림' 이라는 애칭으로 청취자들과 좀 더 친근하게 만나고자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BTN라디오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문, 독경염불 채널 등 총 4개 채널로 구성되었다. CH1은 법문채널로 24시간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로 BTN의 기존 법문프로그램과 신규 법문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메인 채널 역할을 한다.

CH2는 염불독경채널로 하루 종일 스님 및 불자들의 염불과 독경을 들을 수 있어 신행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염불 보급과 염불수행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CH3과 CH4는 명상과 가요채널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BTN라디오 '울림' 을 청취하는 방법은 BTN 홈페이지(www.btn.co.kr)에서 직접 듣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BTN 어플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쉽고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전용 라디오 기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BTN라디오 '울림' 은 3월 1일 정식으로 오픈한다. 정혜숙 기자